

01

인구

총인구

인구구성(인구 피라미드)

노령화지수 및 부양비

외국인 인구

출산 및 사망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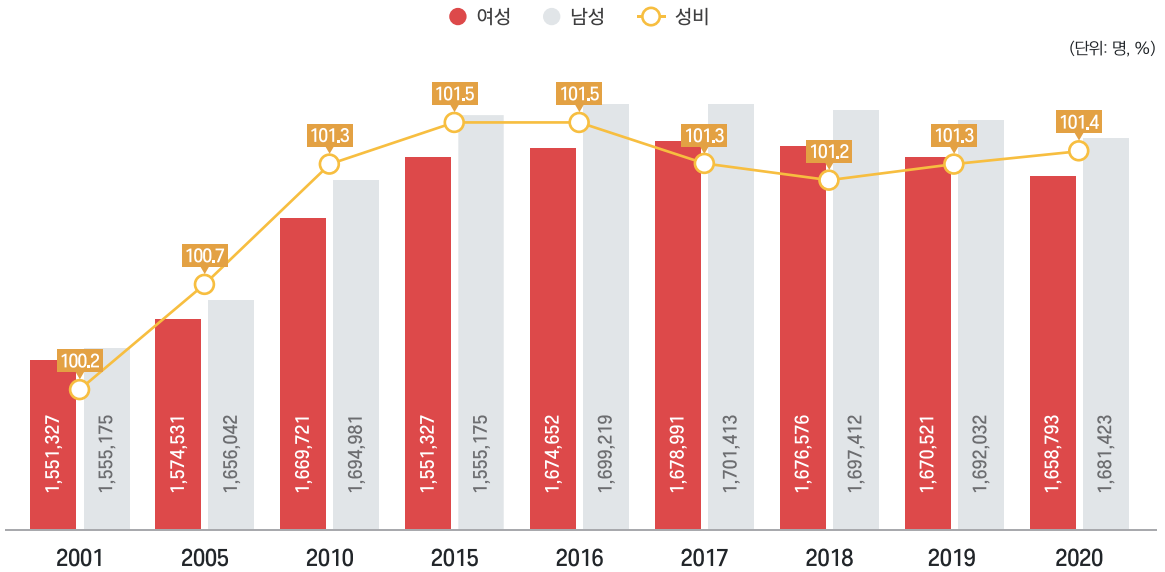
인구이동

1. 인구

총인구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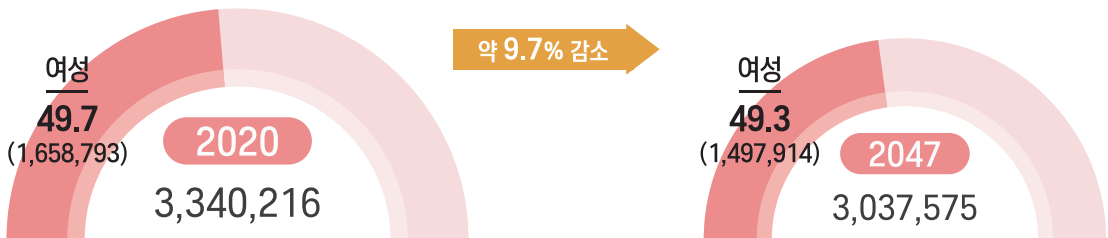
총인구는 2020년을 기점으로 성장세에서 감소세로 전환됨

성별 인구추이(2001~2020)



자료: 통계청, 「인구총조사」, KOSIS, (표 1-1)

장래 인구추계(2020, 2047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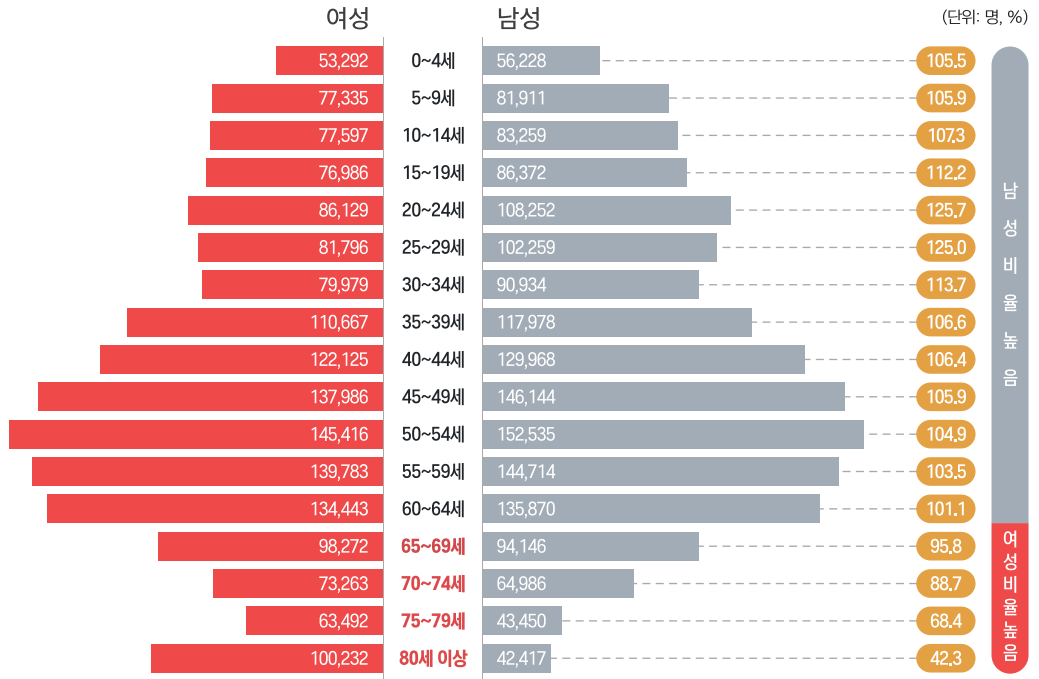
자료: 통계청, 「장래인구추계」, 중위추계기준, KOSIS, (표 1-2)

- 2020년 총인구는 3,340,216명으로 이 중 여성인구는 49.2%인 1,658,793명임
- 총인구는 2020년 3,340천명에서 2047년 3,038천명으로 약 9.7% 감소될 것으로 예상됨
- 여성인구는 2017년 1,679천명을 정점으로 감소하고 있는데, 장래인구추계에 따르면 2047년에는 약 1,498천명까지 감소될 것으로 예상됨

인구구성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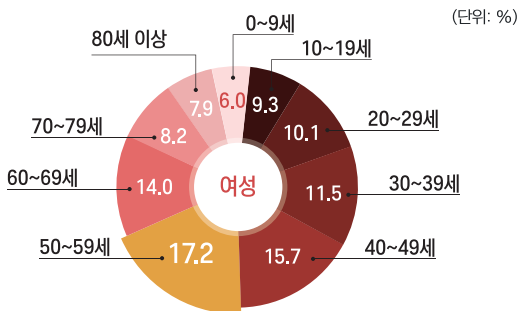
여성인구는 50대 규모가 가장 크고, 65세부터 남성대비 여성인구가 급격하게 증가함

연령 및 성별 인구구성과 성비(2020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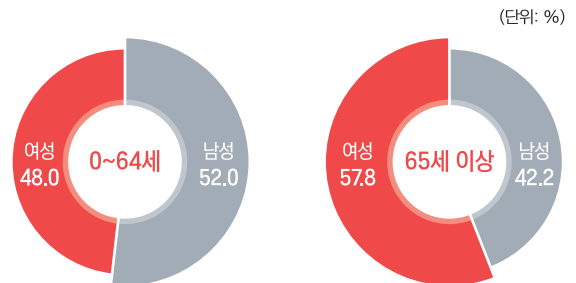


자료: 행정안전부, 「주민등록인구현황」, KOSIS, (표 1-3)

연령별 여성 비율(2020)



연령별 성비 분석(2020)



- 2020년 기준, 연령별 여성인구 규모는 50대 17.2%, 40대 15.7%, 60대 14.0% 등의 순임
- 2020년 기준, 경남의 성비는 101.4임. 연령별로는 20~24세의 성비 격차가 125.7로 가장 크고, 65세 이상 구간에서는 성비 격차 역전이 일어나 고령 인구의 여성화 현상이 나타남

1. 인구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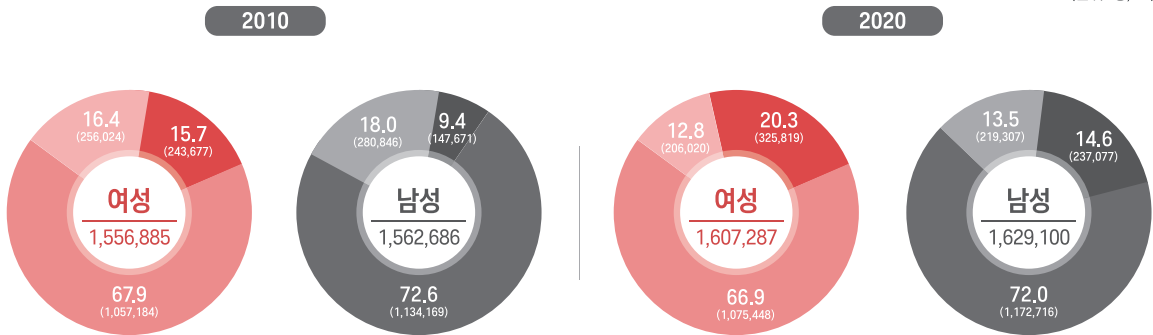
노령화지수 및 부양비

2020년 고령사회에 진입함에 따라 노령화지수와 노년부양비가 증가함

연령 3계층별 및 성별 인구구성(2010, 2020)

● 연소연령(14세 이하) ● 생산연령(15~64세) ● 노령인구(65세 이상)

(단위: 명, %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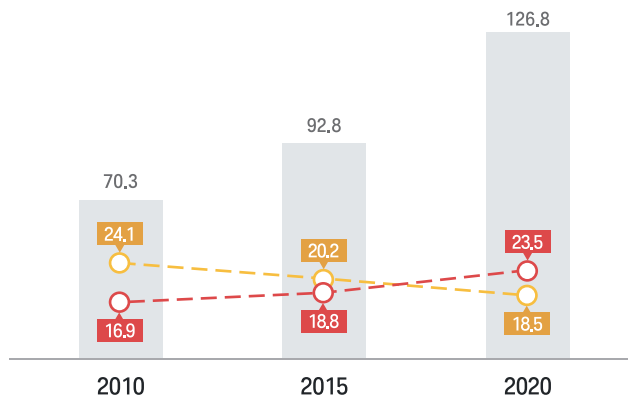


자료: 행정안전부, 「주민등록인구현황」, KOSIS. (표 1-4)

노령화지수 및 부양비(2010~2020)

● 노령화지수 ● 유소년부양비 ● 노년부양비

(단위: %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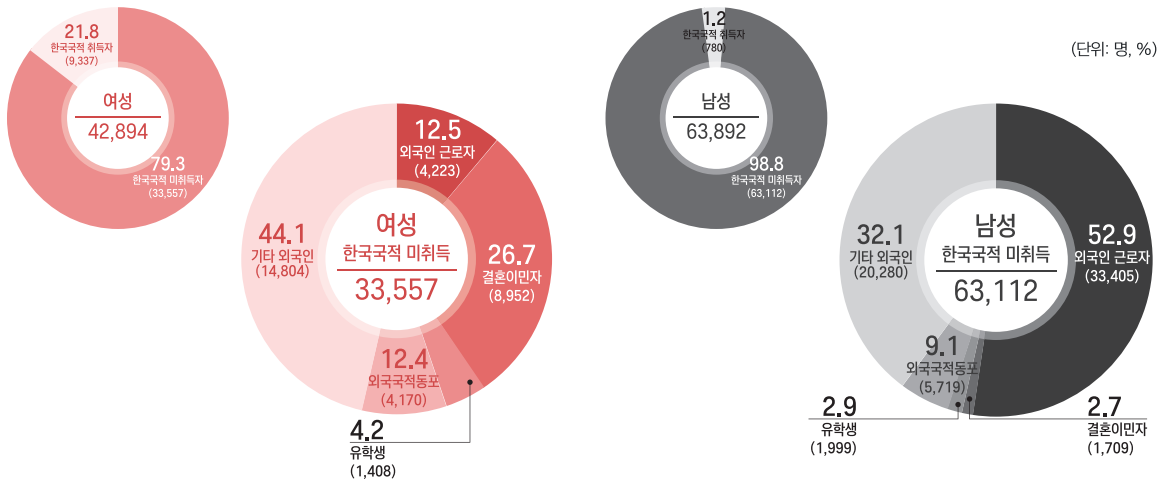
자료: 통계청, 「장래인구추계」, 중위추계기준, KOSIS. (표 1-6)

- 2020년 노령인구 비율은 2010년 12.5% 대비 4.8%p 증가한 17.4%로 고령사회에 진입함
- 고령인구의 여성화 현상이 특징적으로 나타나는데, 여성 노령인구 비율은 2010년 이미 15.7%로 고령사회로 분류되었고, 2020년엔 4.6%p 증가한 20.3%로 초고령사회에 진입했다고 볼 수 있음
- 인구의 고령화 현상이 비교적 빠르게 진행되는 것과 비례해 노령화지수와 노년부양비가 증가하는 추세를 보임

외국인 인구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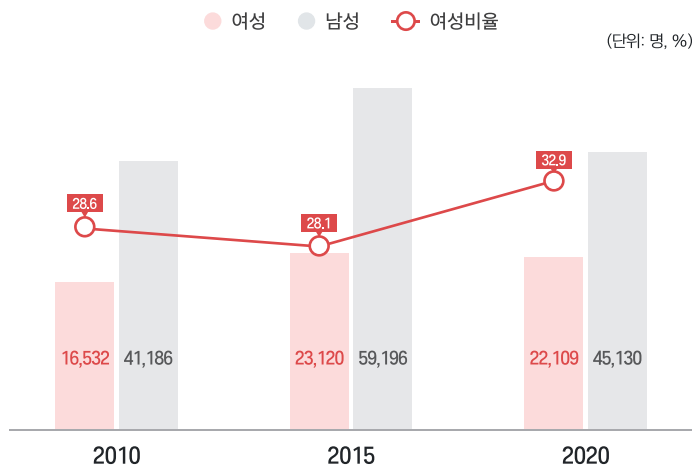
2020년 외국인 주민 인구는 총 106,786명이고, 여성은 40.2%인 42,894명임

체류자격별 외국인 주민(2020)



자료: 행정안전부, 「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현황」, KOSIS. (표 1-10)

등록 외국인 인구(2010~2020)



자료: 법무부, 「출입국자 및 체류외국인통계」, KOSIS. (표 1-8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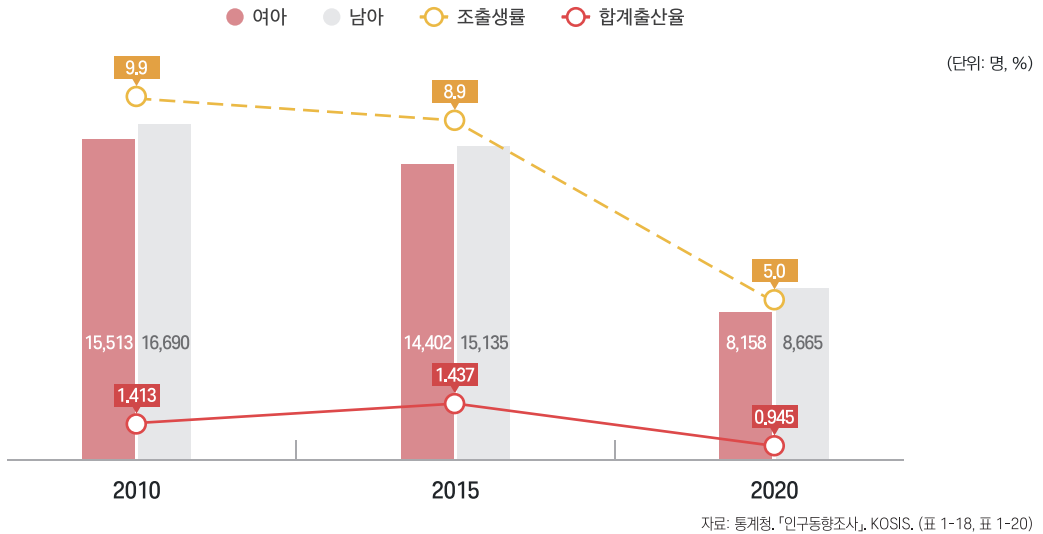
- 외국인 주민의 한국국적 취득여부의 성별격차가 컸는데, 2020년 기준 여성은 21.8% 남성은 1.2%가 한국국적을 취득한 상태임
- 한국국적 미취득 외국인 주민의 체류자격은 여성의 경우 결혼이민자가 26.7%로 가장 많고, 남성의 경우 외국인 근로자가 52.9%로 가장 많음
- 등록 외국인 인구의 여성비율은 약 28% 수준에서 2020년 32.9%로 증가함. 이는 외국인 남성인구가 경남 산업구조의 변화와 코로나19 등의 원인으로 감소해 상대적으로 비율이 조정된 결과임

1. 인구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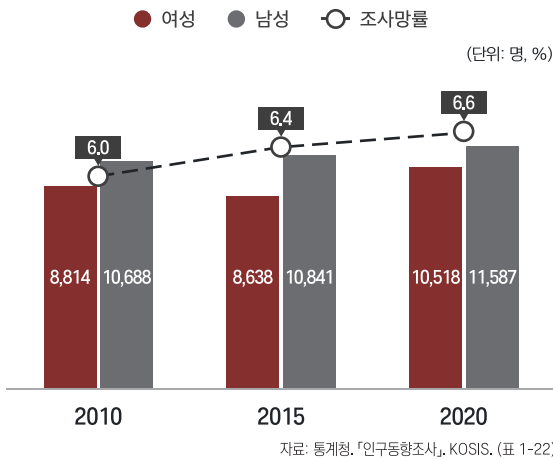
출산 및 사망

2015년 이후 조출생률과 합계출산율이 급격하게 감소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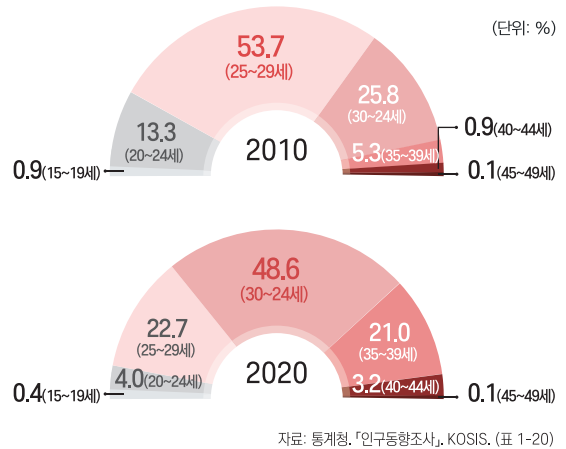
성별 출생아수 및 합계출산율(2010~2020)



성별 사망자수(2010~2020)



연령별 출산율(2010, 2020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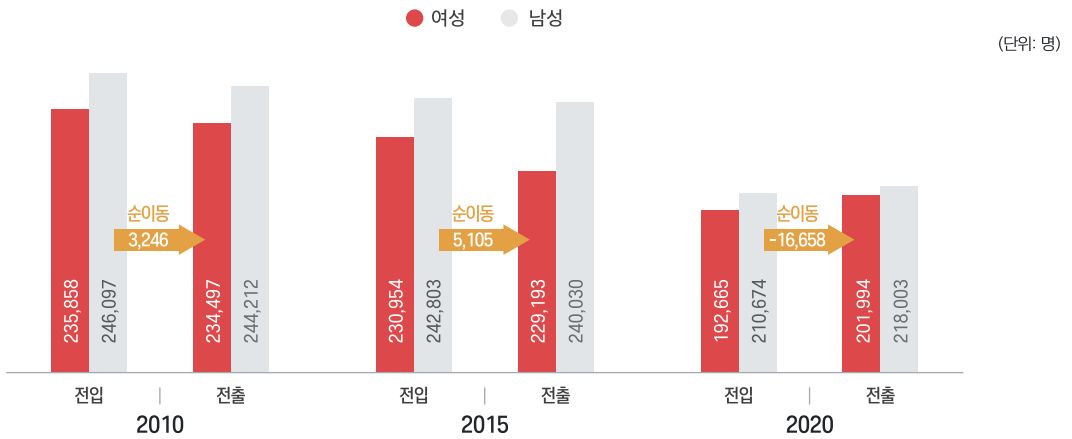


- 조출생률과 합계출산율은 2015년 각각 8.9%, 1.437%에서 2020년 5.0%, 0.945%로 급감함. 즉, 가임여성 1명당 출생아수가 1명이 되지 않는다는 의미임
- 최근 10년 사이에 출산율은 25~34세 구간에서 급감함. 25~29세 여성인구 1천명당 2010년에는 105.3명을 출산했으나 2020년에는 42.4명을 출산했고, 30~34세 여성인구 1천명당 2010년에는 122.2명을 출산했으나 2020년에는 90.9명을 출산한 것으로 나타남
- 조사망률은 2010년 6.0%, 2015년 6.4%, 2020년 6.9%로 점차 증가하고 있음

인구이동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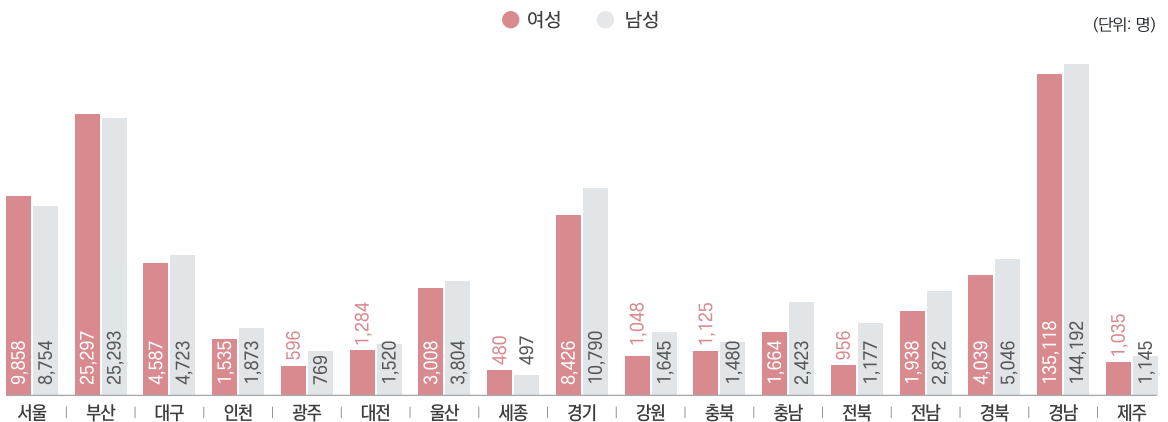
최근 10년 사이 인구 순이동은 유입에서 유출로 전환됨

성별 인구이동(2010~2020)



자료: 통계청, 「인구동향조사」, KOSIS. (표 1-24)

성별 주요 전출지역(2020)



자료: 통계청, 「국내인구이동통계」, KOSIS. (표 1-25)

- 인구 순이동은 2010년 3,246명, 2015년 5,105명으로 순유입이 증가하다가 2018년을 기점으로 순유출로 전환되었고, 인구유출 현상은 가속화 되고 있음
- 2020년 순유출 된 인구 16,658명 중 여성은 56.0%인 9,329명으로 인구유출의 여성화 현상이 나타남
- 도내 이동을 제외하고 여성은 주로 부산(12.5%), 서울(4.9%), 경기(4.2%) 등의 지역으로 이동하고, 남성은 부산(11.6%), 경기(4.9%), 서울(4.0%) 등의 지역으로 이동함